



형이상학적 풍경을 그러내는 시인

술 출판사 편집부 전수련

1997년 봄, _____ 나는 시집 전문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의 축제'를 열었다. 마침 어떤 독자가 전화를 걸어와 '시의 축제'에서 낭송할 시인의 명단을 불러달라고 해서 호명해주었는데, 나는 허만하 선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허만하 씨'라고 소개했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주간님이 나중에 허만하 선생은 육십이 넘은 노시인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출판사에서 퇴사한 후에 각 일간지에 연일 허만하 선생의 사진이 실렸다. 술 출판사에서 등단 3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비는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를 출간한 것이다. 거의 무명에 가깝게 오랜 세월을 보내며 중앙 문단으로부터 소외되어 부산 지역에서 홀로 묵묵히 시작(詩作)을 해 온 거장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며 책을 구입해 읽었다. 그때의 놀라움이란! 나 역시 중앙 문단에 치우친 독서로 인해 지방 토착 시인들을 외면해온 데 대한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토록 뛰어난 작품을 몰라본 지난날의 나의 태도에 대해 멀리에서나마 허만하 선생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후 또 시간이 흘러 우연찮게 술 출판사에 입사하자마자 허만하 선생의 세 번째 시집 《물은 목마름 쪽으로 흐른다》와 세 번째 산문집 《길과 풍경과 시》를 편집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나는 기대감으로 원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선생의 산문집 《청마풍경》을 읽으며 또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과 사유의 깊이를 보며 편집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알기로 술 출판사의 임양목 사장님(문학평론가 임우기)은 두 번째 시집의 출간 이후로 세 번째 시집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하기를 권유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허만하 선생님은 술 출판사에서 출간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 그것은 오랜 시절 소외되어온 시작(詩作)의 성과를 옹기 판단해준 사장님에 대한 감사함과 술 출판사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산문집 《길과 풍경과 시》는 편집하면서 수많은 문학가들의 이름과 저서들, 인용된 한시의 한자 고증 문제 때문에 선생님께 이메일로 수차례 문의를 드려야 했다. 어떤 용어의 경우 선생님은 이 정도의 용어에 주를 다는 것은 독자의 수준을 알보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대학원 졸업 이상의 사내 편집자들조차 모르는 용어들이 많았다. 어쨌든 초교, 재교, 삼교를 보는 과정에서 이처럼 가슴 뛰게 좋은 원고를 다루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본 '풍경'에 대해서 '형이상학적 풍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풍경의 의미는 깊이 있는 지식과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우주를 날아다니는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흥미있었다.

산문집 《길과 풍경과 시》는 최근 출판 경향이나 대중들의 독서 취향과는 상관없이 편집자로서 모든 독자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의 하나로 소개하고 싶다. 좋은 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곳곳이 살아온 인생의 양식과 자연과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그 자체가 녹아 있는 바로 이런 책 말이다. **술**